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행원: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8호

서기 2000년 12월 13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놓고 놓고 다 놓아질 때까지 놓으라

### 연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문** 스님, 수계법회 때 연비를 하는 데, 굳이 팔에 흥터가 생기게끔 연비를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부처님의 뜻이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나타내시면서 스님들에게 마음으로, 입심으로 이어져 그 부처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수계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처님의 뜻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모습은 각각이지만 그 마음은 둘이 아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스님들이 우리에게 연비를 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해서 연비를 받았으니 안 받았으니 생각하지 마시고 참다운 생각으로써, 자기 마음과 같이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 극락과 지옥이 진짜 있나요

**문**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실제로 극락과 지옥이 있나요? 그리고 불법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내가 학교에 가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대로가 부처님 법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바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바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생이 되는 데 다음 생에도 그 차원에서 또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들은 이 몸 떨어지기 전에 꼭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항상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하시면서 "너로부터 너를 알고 너에게서 벗어난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관념과 습관으로, 부처님 법은 절에만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은 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보고 밖으로 구하는 습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하는 거지.

예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밭담 없이 뛰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부처이자 중생의 삶이야. 마음은 부처요,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이지. 그래서 상구보리 화해중생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말씀은 자신부터 알아야 풀리가 터져서 일체를 터득하며, 지혜로운 자비가 나오고 제물이 아닌 도리를 알며, 참나에 일체 제물이 들고 나심을 증득할 것인 뜻이지.

그리고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어. 그런데 미래에 승천하자고, 극락가자고 지금 빌고 있다면 그게 말이나 될까? 오를 없는 내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즐거움이 있어야 내일도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무겁게 두어 깨닫지 못해서 지니고 다니는 그런 삶은 삶의 보람이 없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지니고 다니다가 다음에 극락가라 하고 살하신 게 아니야. 오늘 모르는데 내일 천당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자기 근본에 모든 것

을 믿고 맡기게 되면 마음이 푸근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극락이자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 그 천국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거든.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을 짜집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니까. 그러니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이 오든 지옥이 오든 겁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언제나 나의 근본, 주인공을 잊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야 하도록 해.

### 믿는 마음 진실하지 않는데...

**문** 어린 시절부터 항상 나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나이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고 싶다는 허튼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나름대로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을 주인공에 놓으려고 계속 노력도 해보지만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조금 후엔 다시 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인지 머리로는 주인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진실하게 믿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마음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자주 흐트러져요. 주인공에 놓는다는 게 '말대로 돼라. 난 어차피 죽어도 미련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돼 버립니다. 어떡해야 진실하게 마음이 한곳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요?

**답** 음식을 해서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려면 우선 음식 할 거리를 사와야죠? 그렇게 음식 할 거리를 장만해 놓고 요랑있게 잘 만든다면 먹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간편하구요. 그것처럼 우선은 어떤 재료를 사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넣고 만들어야 할 만을 수 있나 이런 게 문제겠지요. 그런데 직접 믿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왜 이게 안되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될까 하는 온갖 생각으로 고통을 짓는 것은 음식 재료를 사놓지도 않고 만들 공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투정만 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누가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른 걸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대신 누가 풀줄 수도 없고, 대신 먹여줄 수도 없고, 또 대신 사과할 수도 없고, 죽여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산 것대로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밭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을 구태여 짊어지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도 그냥 잘나할 나 없어진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참나 할나 없어지면서 한 발로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손에 힘이 없게 되고 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어려서도 힘들다 하더라도 오직 한 구멍을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한다면 현실로 나오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스스로 능력있게 자재할 것이니,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모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보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세생생 자유권을 얻게 되겠지요.

처음부터 진실하게 되지 않았지만 오직 나의 근본을 진실히 믿고, 체념하듯 맹목처럼 믿고 '다가오는 모든 것을 오직 내 안의 근본, 당신만이 나를 진실



그림 · 최주현

## 근본에 맡겨놓고 살다보면 손없는 손과 밭없는 밭이 함이 없이 하는걸 알게 돼요

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 죽어든 살리든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맡겨놓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소식이 올 겁니다. 조금만 마음으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 올바로 놓는 법 무엇인지요

**문** 놓는다는 것이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인식이나 뭐냐 하는 논리는 모두 허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걸 다 놓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도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저 놓는 연습, 그리고 믿고 바치는 연습이면 될까요? 이 질문은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저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도 알 것 같습니다. 전 그저 성내지 않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 놓고 놓고, 놓지 않음이 없음을 공부는 길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이지요. 그런데 나라는 것이 한 알갱이라도 남아있다면 한 발 자국이냐며 떼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나고 드는 모든 것을 근본에 일임하고, 항상 주인의 뜻을 따르는 충직한 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과 시자는 틈 없는 틈이 열려서, 자(子)가 일을 할 때는 부(父)가 하나로 돼주고, 부가 일을 할 때는 또 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직 믿고 맡길 곳은 근본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진실하게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실 알고 본다면, 원래 부와 자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이데도 내가 나라고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부와 자는

요만큼의 틈도 없이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살아간다. 내가 공부한다. 내 것이다.' 하고 고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멍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근본과 둘이 아니게 하나로 결합이 됐다 하더라도 또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에는 물질로 꾸미려는 마음을 내 안으로 다잡아서 놓아야 했지만, 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 마음 안에서 이끄는 것만으로도 다 잡아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걸려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것을 근본에 놓고 자유롭게 살아주세요. 문 아닌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야 문이 열리든지, 아주 부서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누구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발전하는 공부니까요.

### 직장생활하며 수행하는 법

**문** 우연히 좋은 곳을 발견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입니다. 마음이 허전해서 작년 가을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웠는데 오고 가며 길가에서 위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얀거뿔 집에서 직장경 예찬문을 읽고 절을 했는데 회양하면서 무엇을 할까 망설이다 요즘은 가까운 절에서 틈틈히 천불명호집을 사서 절을 하는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중심이 되는 부처님을 그리라 하는데 아직 생기기 않고 저처럼 그저 혼자 시간 날 때 절을 찾아뵙고 흐를 만큼 절만 하고 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저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전철에서나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많은 경전중에서 진실로 무엇을 선택해서 해야 좋은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참 스승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는데 스님을 뵈옵게 되어 감사합니다.

**답** 수행의 문은 많이 있습니다. 열 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모두 다른 문이 아닙니다. 주인공! 즉 마음 자체는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빚잡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생각나게 하고, 이것저것 보게 하고, 이것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만물이 벌어졌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일체만물이 본래 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고 부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서야 달리 무엇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내 탓이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는 말을 철두철미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내가 없다면 경계는 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내 가정을 잘 꾸러가는 것도 흥비박산 나게 하는 것도 다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자기를 진실히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는 바로 이 겁대기가 아닌 진짜의 나,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 공에 빠진다는 의미

**문** 스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에 보면 살맛없는 공에 빠지면 천리 만리 길을 흐르치고, 현실에 매달리면 더디어져서 어느 천년에 딱이 붙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공에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같은 사대에 사는데도 약행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만약에 독 있는 독사가 먹는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이 될 것이며, 약초가 먹는다면 건 건 더불어 약초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뭇잎입니다. 똑같은 칼이라 해도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알고 본다면 한마디도 한 게 없고 한 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도 한 것이 없고 행동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 참자기를 믿는다 해도 중심을 세우지 않고 물질 세계에 흔들려서 산다면 그것은 물질세계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발견을 했다하더라도 안에서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또 행을 한다면 그건 정신계에 이끌리게 됩니다.

남의 것을 흉노고 싶다는 생각이 난다고 남이 어찌했든 상관없이 생각 일어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안의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잡니다. 그럴 때 사

람에 따라서 약한 마음이 더 강하나 선한 마음이 더 강하나 하는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좋은 시대에서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지요. 저 언덕을 넘어서야 만이 우리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고해의 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하는 것과 같죠.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감로수가 있으니 그리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겁탈하다는 언덕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정신계로 들어가라고 하니 공에 빠져서 물질계는 무승계로 생각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면 바로 여러번 자체일 겁니다. 아야, 정신이 빠져도 육신은 승장이 되니 무효고 또 정신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그러면 어떡해야 율을까요? 정신계로 만들려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잡이 돼서 중용으로 사셔야 정상적이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해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것인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부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따로 있는 걸로 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몸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법도 나의 생활의 법과 같이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는 내 아들이 전체의 아픔인 줄 알고 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의 길을 걷는 삶을 알아야 합니다.

### 사업 진척 안됩니다

**문** 선원과 연인이 닿은 지도 4년입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제 나름대로 스님 말씀 따라 '일체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한다'는 것을 그 어떠한 신조 보지도 우선으로 믿고 오계를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떨어질 것도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 힘이 들기를 울립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지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니 저도 지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서 하루빨리 제가 하는 일이 시작되고 하마디라도 되어야 하겠는데 아무리 주인공 그 자리에 관한고는 있지만 현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답**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에, 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감사하게 말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또 굴러서 말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대(四大)가 다 통일이 돼요. 그러면 안과 밖이 다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거는 제거하면서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에서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돈 벌기는 딱 잘라내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니깐 그만 안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회사가 아니고 남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돈을 몇 사람한테서나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고 믿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직 믿을 데가 한 군데 있었지요?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가 있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에 공짜가 붙어있어서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가고, 슬기롭게 이끌어가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러죠.

20면으로 계속

가복은 언덕을 넘듯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5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준